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33006

2006년 2월
교육학석사(교육행정)학위 논문

실업계고등학교 진로지도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이 영 동

실업계고등학교 진로지도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ditions and improvement of career guidance i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2006*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이 영 동

실업계고등학교 진로지도 실태와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주 성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교육행정)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05*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 전공

이 영 동

이영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인

*2005*년 *12*월　일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목차 ····· iii
ABSTRACT ····· v
I.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2. 연구의 내용 ····· 3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 4
II. 이론적 배경 ····· 5
1. 진로지도의 개념 ····· 5
2. 진로지도의 필요성 ····· 7
3. 실업계고등학교의 진로지도 ····· 10
4. 선행연구 고찰 ····· 15
III. 연구방법 ····· 18
1. 연구의 대상 ····· 18
2. 자료 처리 ····· 19
IV. 연구결과 및 분석 ····· 20
1. 실업계고등학교 진로지도 실태 ····· 20
2. 요약 및 논의 ····· 45
V. 결론 및 제언 ····· 51
1. 결론 ····· 51
2. 진로지도 개선방안 ····· 53
3. 제언 ····· 56
참고문헌 ····· 58
부록

표 목 차

<표 1> 교사의 일반적 특성 ····· 18
<표 2> 학생의 일반적 특성 ····· 19
<표 3> 실업계고등학교 진학 이유 ····· 20
<표 4> 졸업 후의 진로 ····· 21
<표 5> 취업 후의 진로 ····· 21
<표 6> 취업을 선택한 이유 ····· 22
<표 7> 대학진학을 선택한 이유 ····· 23
<표 8> 직업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 ····· 24
<표 9> 실업계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만족도 ····· 24
<표10> 진로교육 활성화 및 개선 방법 ····· 25
<표11> 진로지도의 활성화 ····· 26
<표12> 진로교육 시 애로점 ····· 26
<표13> 학생들의 진로지도 담당자 ····· 27
<표14> 진로지도 횟수 ····· 27
<표15> 진로지도의 의미 ····· 28
<표16> 진로지도의 상담교사 활동 ····· 28
<표17> 진로지도의 중요성 ····· 29
<표18>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정부의 지원 ····· 30
<표19> 교육과정이나 특별활동에 반영 ····· 30
<표20> 진로지도 시 고려 사항 ····· 31
<표21> 학교관리자의 진로지도에 관한 인식 ····· 31
<표22> 진로지도 상담 교사 ····· 32
<표23> 진로지도 정도 ····· 33
<표24> 진로지도 시 구체적 자료 제시 ····· 33
<표25> 진로선택 시 도움을 원하는 대상 ····· 34

<표26> 진로지도 시 전공과의 관련성 제시 ····· 35
<표27> 진로지도의 중요성 ····· 35
<표28>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 ····· 36
<표29>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 ····· 37
<표30> 진로지도 방법의 효과성 ····· 37
<표31>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의 충분성 ····· 38
<표32>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의 호응도 ····· 38
<표33>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 39
<표34> 진로지도의 효과 ····· 39
<표35>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 ····· 40
<표36> 선생님의 진로지도에 대한 호응도 ····· 41
<표37> 적성검사의 필요성 ····· 41
<표38> 진로지도에 대한 정보수집 노력 ····· 42
<표39>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 여부 ····· 42
<표40> 부모님의 직업 ····· 43
<표41> 부모님 직업에 대한 만족도 ····· 43
<표42> 부모님의 직업에 불만족 하는 이유 ····· 44

ABSTRACT

A study on conditions and improvement of career guidance in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Yeong-dong Lee

Advisior : Prof. Joo-sung Park, Ph.D.

Major in Educational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vocational high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looked at career education and in which way it's actually provided, in a bid to identify it's problems and seek ways to offer better career guidance. To figure out the career awareness of teacher and students and the actual condition of career guidance, questionnaires for teachers and student were separately prepared based on earlier studies to suit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then distributed among 150 teachers and 450 students. The responses from 102 teachers and 372 students were gathered. For data analysis, SPSS program was used, and frequency and percentage were calculated.

The brief findings of this study about problems with career guidance in vocational high school were as below:

First, the students weren't satisfied with school, and grade and family environment, rather than aptitude, made a greater contribution to having a lot of them choose vocational high school, and this phenomenon resulted in undermining their learning effect.

Second, they didn't have enough chance to identify their own talent or

aptitude, since most of the schools were devoid of full-scale test in this regard.

Third, there wasn't sufficient, well-organized information on career, as career counseling was mostly provided by their class teachers. And school administrators didn't pay enough attention to that, and the effect of counseling fell short of expectations.

The ways to offer more efficient career guidance could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he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weren't aware of what they really wanted to do and what field they were interested in. Above all, they should be assisted to know about themselves better.

Second, current vocational high school could be defined as an educational institute that deals with both finished and further education. An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ncreasingly hope to go to university because of our social climate. Therefore, these fact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hen teaching methods are developed, and career guidance should be mapped out in consideration of the aptitudes of those who want to find a job.

Third, students should be given various information on future society and demand for workforce to make an informed choice. It's needed to stimulate their interest in career guidance and raise its efficiency by supplying ample information.

Fourth, teacher training should be reinforced to acquire and integrate diverse information and recreate it. School manager should keep in mind that career guidance is not a mere part of educational activities but one the vital tasks to lead students in the right direction.

Fifth, students should make efforts to acquire career information on their own, think about a long-term prospect of a specific occupation they have in mind, and learn to foresee the future of our society.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과 개성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아실현 하는 것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는 인적자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국가의 생산력을 높임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특성을 제대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신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로교육과 진로지도의 문제인 것이다.

진로교육의 목적은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발견하여 계발시키며, 그에 상응하는 진로를 선택하게 하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 따라서 학교는 제 요인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이 그들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진로지도는 학교교육의 핵심이 되므로 초등학교 때부터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의 미비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다. 실제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능력을 길러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일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의 각 분야에 종사할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실업계고등학교에서의 진로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실업계고등학교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산업계에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공급을 통하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최근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 및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이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핵가족화로 인한 고등교육의 욕구 증대,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 등 사회전반에 걸친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실업계고등학교는 산업체와 학부모·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실업계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시 미달 사태 등과 같은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사회 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직업의식에 있어서도 평생직업에서 한시적 직업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

다.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유지·발전시켜야 하는 평생 학습사회가 도래하게 되었고 따라서 완성 교육을 지향하던 실업계 고교의 교육 또한 계속교육의 형태로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손양수, 2001).

교육부 실업계고등학교현황(2000)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실업계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문제는 대체로 성적이 부진하거나, 가정이 빈곤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학생들의 개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선택에 대한 진로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사회에 깊이 깔려있는 고학력 위주의 인문숭상 교육으로 인하여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취업과 진학이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취업률 : 95년 81.6%, 2000년 57.7%, 진학률 : 95년 13.2%, 2000년 37.4%).

이와 같이 우리나라 교육에서는 소질과 적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출세 지향적인 진로의식과 직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대학교육이 신분상승의 주요수단으로만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진학을 위한 인문교육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일반계고등학교는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반면에, 실업계고등학교 내에서의 진로교육은 정책의 혼미와 대안의 부재 등으로 흔들리고 있다. 또한 일반계고등학교 중심교육은 실업계고등학교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위축시킴으로써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실업계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기피하여 실업계고등학교는 입학 정원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지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며,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대체로 낮고 편모, 편부 학생들이 많아 학부모의 관심도 저조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보통 교과는 일반계와 같으며 전문교과는 더욱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직업에 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입학했던 학생들마저도 주변의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자긍심이 저하되며, 일반 학생들도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어 중도탈락자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뿐만 아니라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진학동기도 대부분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선택보다는 성적에 근거한 선택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학교 성적이 하위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한 학교 내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도 자신

의 적성이나 소질을 고려하기 보다는 성적에 따라 선택하거나 순간적인 기분이나 친구의 영향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학교생활에 관심이 적어지고, 진로에 대한 뚜렷한 의식이 없으며 삶에 대한 목표마저 흐려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학업열의가 떨어지고 그로 인하여 빚어지는 열등감 등은 사회적 비행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취업과 관련한 직업교육이 주목적이었던 실업계고등학교들이 사회적 상황과 여건들이 변함에 따라 점차 취업과 진학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하는 진로지도로 그 모습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대학입시에서 실업고생 특별전형이 생기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실업계고등학교가 직면한 제도적 모순과 교육 환경적 문제점들을 고찰하면서 침체일로에 있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위기원인과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진로교육의 문제점 그리고 진로지도상의 당면 과제들을 분석한 다음, 진로교육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새로운 가치관 형성을 위한 진로선택의 올바른 방향의 제시와 진로지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실업계고등학교의 위기와 관련된 문제로 이는 단순히 경제 및 직업구조 변화와 학령 인구의 감소와 같은 외부요인에만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침체 원인과 해결책을 규명한다.

둘째,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진로의식 및 직업관을 파악하여 올바른 진로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셋째, 분석된 문제점의 해결 및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 범위는 농어촌과 저소득층이 많은 전라남도를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여건이 달라 결과에 대한 동일한 적용은 무리가 있음을 밝혀 둔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설문지를 작성 조사하였으나, 표준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의 방향에 대한 모든 변인을 제시하였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음을 밝혀 둔다.

II. 이론적 배경

1. 진로지도의 개념

진로지도(career guidance)는 학생들의 정의적 성숙과 진로발달 과정을 도와주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으로 내담자가 가장 적절한 진로결정을 하기 위해 자신과 환경의 이해를 종합하고 응용하도록 돕는 목적을 가진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개인과 개인 또는 소집단의 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진로지도란 학생들의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질과 능력을 이해하여 앞으로 자기 자신에게 전개될 미지의 세계에 대해 좀 더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진로를 선택·계획하며, 졸업 후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지도·조언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로지도의 개념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Bailey(1972)는 진로지도를 개인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선택하며, 그에 대한 준비를 하여 선택한 진로에 들어가 계속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경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Taylor(1972)는 학생들이 그들의 삶에 대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그들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진로지도는 학생들을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으로써 각 개인이 자아실현에 공헌해야 된다는 교육이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재창(1997)에 의하면 진로지도(career guidance)란 개인의 진로발달을 자극시키고 촉진시키기 위해서 상담자에 의해서 수행되는 전문화한 활동이라고 했다. 특히 학교 측면에서는 진로계획, 의사결정, 적응기술 발달, 진로정보, 자기이해 등을 제공하는 능동적인 교육과정의 개입을 총괄해서, 개인으로 하여금 전 생애에 걸친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지속적인 과정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정근(1988) 역시 진로지도란 개인으로 하여금 진로를 계획하고 그 진로에 대한 준비를 하며, 적절한 시기에 그 직업을 선택하고 선택한 직업에 잘 적응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김충기(1989)는 진로지도는 진로교육의 하위 개념으로, 진학지도와 직업지도의 뜻으로 사용되는데 진로를 계획하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여 적절한 시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분야에서 진학 혹은 직업 선택을 하고 잘 적응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허만길(2001)에 의하면 진로지도는 개인이 일생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도와주는 교육이라 하였다. 인간이 자신의 생활양식의 일부로서 일에 관해 배우거나 일에 종사하기 위해 준비하는 경험의 전체를 보는 경우를 비롯하여 개인이 일생을 어떻게 가치로운 일을 행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1995)의 고교 진로교육지도안에 따르면 Bailey(1973)는 방향을 세우고 그에 대한 준비를 하여 선택한 진로에서 계속적인 발달을 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제공되는 일체의 경험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Taylor(1972)는 학생들이 삶에 대하여 적절한 결정을 내리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진로지도의 개념은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정의되고 있지만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진로지도란 개인의 사회적 적응을 원만하게 이루고 적성·흥미·능력에 알맞은 직업 선택으로 일생 동안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서 학교교육의 핵심적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진로지도의 필요성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물론 성적과 같은 공부와 관련된 것인데 성적을 걱정하는 이유를 보면 사실은 성적이 진학이나 진로와 연관이 되어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만일 성적과 관계없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할 수 있다면 성적을 가지고 고민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진로문제라고 할 수 있다(이재창, 1998)

이렇게 학생들이 학업성적이나 진로문제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막상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논하는 대상은 친구, 부모, 형제, 교사 등의 순서를 보여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조언을 잘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대로 진로지도나 진로상담을 받는 기회 없이 진로를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이재창, 1998).

현대사회는 고도의 산업사회로 변화와 발전 및 직업의 분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전통적인 가치관이나 직업관으로 현대생활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종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성과 능력을 무시한 채 학교성적이나 시험점수로 학생들의 진로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급변하는 사회는 학생들에게 자기이해나 평가, 적성 등을 요구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진로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은 산업과 사회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으며 또한 21세기는 지식 정보화 사회구조로의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직업 세계도 점차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되어 자기에게 알맞은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매우 어렵게 되었으며 체계적인 준비가 더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감의 형성과 더불어 발달 과업을 성취해야 하는데 현명한 진로 선택은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하는 일은 학교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김충기(1989)는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1) **개인적 측면에서의 진로지도의 필요성**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진로문제가 절실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학교교육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학생들에게 일과 직업 세계에 관련된 자아인식의 능력을 길러주지 못하고 오로지 입시교육에만 치우쳐있으며, 산업사회의 급격한 발전 추세에 따라 복잡 다양한 일과 직업의 종류에 대한 객관적 이해가 필요한데 학교교육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나 역할도 하지 못하는 전통주의적 교육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은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나 태도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학생들은 그들 인생의 목표설정과 직업선택에 있어서 유연성과 다양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에 학교교육에서 대학입학을 위한 주입식 교육과 학력위주의 사회풍토는 학생들의 적성, 흥미, 능력, 인성을 무시한 채 점수 따기 경쟁에 혈안이 되어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목표를 달성하려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가정여건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고학력주의에 집착하여 학생들이 물심양면의 손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려 된다.

2) **국가 사회적 측면에서의 진로지도의 필요성**

진로교육이 학교에서 실시됨으로서 사회와 국가발전에 필요한 인력의 균형된 개발을 유도할 수 있으며 과열 과외 및 재수생 누적에 대한 사회문제 해결의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국민들의 직업수행에 있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일에 대한 적응력이 긍정적으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재를 양성함으로서, 충실한 직업인이 양성하는데 진로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누구나 타고난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선택한 직업에 만족하고 보람과 긍지를 느껴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다. 가치관 및 직업 윤리관 교육을 통하여, 원만한 직업생활과 성공적인 자아상을 정립한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려 된다.

3) 학부모 측면에서의 진로지도의 필요성

학부모 측면에서의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보면 자녀에게 일생을 행복하고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의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또한 부모는 자기 자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고 자녀의 심리적 특성, 흥미, 능력, 신체적 조건 등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그에 알맞은 일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자신의 잠재력과 일의 세계를 잘 인식하지 못하므로, 일에 대한 정보를 자녀들에게 정확히 제공하고 진로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해 준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쳤을 때 문제의 인식, 관련된 변인들의 추진, 대안의 모색, 결과의 분석 등에 의해 문제의 결정이나 해결의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사회는 변화하며 그러한 변화는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증대된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직업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부모는 현대인의 물질만능, 학벌위주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의식을 전환하여 자녀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어느 분야의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일에 대해 만족을 느껴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한편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도 아니며 부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님을 알고 지나친 기대나 편견을 버리고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회에 어떻게 공헌 할 수 있을 것인가?” 등에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부모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김병숙(1986)은 새로운 직업은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추구하는 끊임없는 노력이 지속되어야만 미래 사회의 치열한 경쟁 대열에서 합류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로지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병숙은 그 구체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산업사회에서 기술의 급진적인 변화는 노동시장의 인력 수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산업구조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직업의 세계를 변화시킨다.

셋째, 청소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사회의 왜곡된 현상에 따라 진학이나 직업을 선택한다.

넷째, 학교 졸업 후 직업세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직업 준비의 소홀로 인해 진로에 실패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게 된다.

다섯째, 일에 대한 가치관과 논리의 변화는 직업에 대한 가치관 정립에 혼란을 야기 시킨다.

여섯째, 자아실현을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청소년들은 오늘날의 가치관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였고,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오늘날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일을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과 실천적, 창조성을 강조한 직업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진로교육은 개개인의 타고난 잠재능력을 기본으로 하여 적소에 알맞은 직업인을 육성하고 흥미, 적성, 능력, 인성, 신체적 조건, 직업 가치관 및 자아실현에 부합되는 교육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다.

3. 실업계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

1) 실업계고등학교의 진로지도

그 동안 실업계고등학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유지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계속해 제공해주어 짧은 기간동안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전반에 자리 잡고 있는 인문숭상과 기능천시 현상, 자녀수의 감소와 경제적 소득향상으로 진학위주의 교육이 더욱 고조되어 실업계 기피현상은 날로 심각하여 실업계고등학교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배워야하는 보통교과는 일반계와 같으며 전문 교과는 더욱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직업에 관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입학했던 학생들마저도 주변의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자긍심이 저하되며, 일반 학생들도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되어 중도 탈락자가 증가되고 있다. 학교교육이 산업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와 기능 인력을 다양하게 요구하는 현재 산업체 변화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 실업계고등학교에서 체계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 훈련이 미흡하고 현재의 직업교육 훈련이 실제 직업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서울특별시 교육과학연구원, 1999).

2) 실업계고등학교 진로지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실업계고등학교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양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최근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직업세계의 변화,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핵가족화로 인한 고등교육의 욕구증대, 취학인구의 감소 추세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실업계고등학교는 산업체와 학부모·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데 그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진학 동기는 대부분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선택보다는 성적에 근거한 선택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학교 성적이 하위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자긍심이 낮으며 학습 동기가 저조하고 자기 주도적 행동보다는 타율적인 행동을 가지고 있으며 학습에 성취욕구가 매우 낮다.

둘째,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대체로 낮고 편모, 편부 학생들이 많아 학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편이다.

셋째, 학교와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반해, 진학 위주의 진로 와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실업계고등학교는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학교와 교육기관의 교육 성취도 및 교육 평가에 있어 진학 위주로 치우친 결과 실업계고등학교 교사는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보다 무사안일주의 와 적당주의 의식이 많이 팽배해져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취업 및 진학 정보 제공에 있어 취업 정보제공에 대한 학교의 노력이 미흡하다. 학교에서의 진로지도는 자격증 시험의 주관기관과 일정 안내, 입사 시험 면접 준비, 자기소개서 및 자필 이력서 작성 연습, 취업(실습)순위 결정을 위한 규정 안내 등 취업과 관련한 몇 가지에 한정되어있고, 진학 정보실과 취업 정보실의

운영이 유명무실하며 비록 운영이 된다고 하여도 최신 정보자료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1).

마지막으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경제적 사회적 부정적 요인으로 인해 여러 가지 형태의 부적응 현상이나 일탈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몇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실업계고등학교는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 현상은 매년 모든 실업계고등학교로 확산되고 있는 형편이다. 또한 고등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이 상황을 개선해 보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일반 교과와 전문 교과로 복잡하게 구성된 교육과정의 운영 뿐 아니라, 인성 교육이나 진로지도에도 심각한 장애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3) 특별활동을 통한 진로지도

특별활동은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협동적인 참여 아래 자유로운 자기표현의 기회를 부여하여 개성과 소질의 발견 및 신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기르도록 하는 활동이다. 그러므로 특별활동은 그 교육과정 자체가 진로지도의 핵심이 된다(부산광역시 교육연구원, 1997).

오늘날 우리는 기술 변화와 산업 구조의 변화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고도 산업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의 목적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잠재적 소질과 개성을 개발하여 적성에 알맞은 진로 계획을 도와주며, 미래 사회의 생활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데 있다면, 진로인식 단계에 놓여 있는 학생들에게는 학교교육의 모든 영역을 통하여 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미래 사회의 직업을 찾을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지도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 우리 사회에 만연된 진로에 대한 시각은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 및 인성 특성에 관한 고려도 없이 지적인 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입시 위주의 교

육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자녀의 특성 및 능력을 무시한 채 부모의 소망과 가치 기준 판단에 비합리적인 진로의식을 갖고 있는 실정이다.

실업계고등학교에서 특별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진로의식 프로그램을 접해보며, 다양한 사회 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며, 미래의 자기 직업에 대해 탐구하는 능력을 키우는 적극적 교육활동이 운영이 필요하다 하겠다.

4) 진로 정보를 통한 진로지도

현대사회를 정보화 사회, 탈공업화 사회, 불확실성의 시대로 표현하고 있다. 그만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급격한 변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우리들이 보다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하고,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 및 기능을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들 자신의 심리적·정성적·사회적 만족과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는 자신이 추구하는 일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획득하여야 한다(이정근, 1988).

오늘날 수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거나, 잘못 선택한 채 졸업을 하여 사회생활을 하면서 갈등과 고민으로 좌절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와 가정이 학생들에게 보다 광범위한 정보를 탐색, 수집, 관리, 제공해 주어 학교생활이나 장차 미래사회에 현명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활동을 도와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로정보란 개인의 진로 선택 및 적응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식과 이해에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교과활동이나 생활지도 대부분이 진로정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관한 정보는 대략 다음과 같다.

① 학생 자신의 개성 및 가정환경에 대한 이해 자료

② 변천하는 일의 세계에 대한 이해 자료

③ 구체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지식

④ 장래 자기 자아실현에 필요한 사전 지식

그런데 이러한 진로정보의 개념에서 일의 경제적인 측면, 이를테면 임금, 물리적 환경, 승진전망, 근무시간, 소재지, 학력수준과 같은 요인만을 강조 하고 있고, 일이

라는 맥락에 있어서의 인간의 사회·심리적 측면을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수입원, 활동의 형태, 창의성의 형태, 성취, 사회관계, 주체의식의 근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평가하고, 가치 있게 여길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의 경제적 측면만을 강조하는 것은 일의 중요한 요인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일의 세계에 관한 정보를 어떤 개인 또는 학생들에게 제공할 때에는 일의 경제적 측면 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측면도 함께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4. 선행연구 고찰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관과 진로지도 실태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정열(1992)은 '고교생의 직업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에서 실업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진학 동기는 대학입시에 자신이 없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희망 직업에 대한 조사를 보면 금융·회사원 45.4%, 공무원 11.7%로 나타나 회사원이나 공무원에 대한 선호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 사이에 아직도 직업에 대한 귀천의식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직업 선택에 있어서 41.1%의 학생이 교사와의 상담을 통한 진로 결정을 원하고 있다고 했다.

나인옥(1994)은 '고등학생의 진로의식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진로의식은 남녀별로 큰 차이가 없으며,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가 진학을, 실업계가 취업을 계획하나, 실업계에서도 진학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진학을 보면 도시에 사는 학생이 농촌 지역보다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수가 많으며, 농촌지역에서도 남녀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였다.

김원태(1996)은 '실업계 고교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에서는 성적이나 가정환경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획일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개개인의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한 진로지도 또한 어렵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진로지도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진로지도 시간을 교육과정에 제도적으로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대학 진학 희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진로지도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홍우표(2001)의 '종합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실태분석'에서는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진학을 하겠다'와 '진학을 한 후 취업을 하겠다'는 경우를 합하여 77.1%의 학생이 나타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취업보다는 진학을 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진학의 이유도 더 좋은 직업이

34.3%, 사회적으로 인정이 24.8%로 나타나 우리사회의 고학력 세태와 아울러 현실적인 직업관을 보여주고 있다.

정혜란(2001)의 '실업계 고등학생의 직업관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직업을 생계 수단으로 생각하고 실력과 능력을 길러 사회적으로 출세하기를 원했으며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취업에 관련된 상담 활동을 더 많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망 직업에 대한 인식은 전체적으로 개인 사업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남학생은 수입이 많은 직장을, 여학생은 자기 소질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미자(2002)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연구'에서 직업지도에 대한 상담실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 교사들의 직업 진로 요원화를 기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는 직업에 대한 정보수집과 홍보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직업기능교육을 위한 시설 보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각 기업체와의 산학 협동체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김인애(2002)의 '상업계 여고생의 진로 의식와 효율적인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에서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건전한 직업관을 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치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아울러 다양한 직업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대학 진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동일계 학과에 진학하고자 할 때는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더 유리할 수 있는 대학 진학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강창규(2004)는 '농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상당수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해야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직업관에 정확한 체계가 서 있지 못하다고 보았다. 또한 직업 선택에 있어서 개성을 중요시하는 면이 강해져 보수보다는 적성에 강조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다고 하였다.

민효진(2005)은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문 진로 선택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에서는 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중 72%는 대학 진학을 원하고

있지만, 중학교 성적은 중·하위권이 96%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진학지도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진로상담이 담임선생님과 취업지도 교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 상담교사를 활용하는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담실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진학 동기는 대부분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선택보다는 성적에 근거한 선택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중학교 성적이 하위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도 대체로 낮고 편모, 편부 학생들이 많아 학부모의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편이며 진로지도에 있어서도 학교와 교육기관에서는 진학위주의 진로 와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실업계 고등학생은 소외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업계고등학교 교사는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보다 무사안일주의의 적당주의 의식이 많이 팽배해져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지도 실태와 학생들의 진로의식을 조사·분석하여 진로 지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를 위해 표집 대상을 전라남도에 실업계학과(상업과, 농업과, 공업과, 수산과)가 개설되어 있는 64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 1, 2학년과 교사를 중심으로 하여 재학생 450명, 교사 15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부하였는데 재학생 372명, 교사 102명이 응답하였다.

<표 1> 교사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연령	40세 이하	16	(15.7)
	41 ~ 45세 이하	29	(28.5)
	46 ~ 50세 이하	35	(34.3)
	51 ~ 55세 이하	14	(13.7)
	56세 이상	8	(7.8)
경력	10년 이하	12	(11.8)
	11 ~ 20세 이하	32	(31.4)
	21년 이상	58	(56.9)
직위	부장교사	35	(34.3)
	평교사	67	(65.7)
담임유무	맡고 있다.	44	(43.1)
	아니다.	58	(56.9)
계		102	(100.0)

연구 대상 교사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면 <표 1>과 같이 연령별로는 46~50세 이하가 34.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41~45세가 28.5%, 40세 이하가 15.7%, 51~55세 이하가 13.7%, 56세 이상이 7.8%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경력별로는 21년 이상이 58%로 가장 많았으며, 11~20세 이하가 31.4%, 10년 이하가 11.8%순으로 나타났다. 직위별로는 평교사가 65.7%로 부장교사 34.3%보

다 많았다. 담임 유무별로는 담임을 맡고 있지 않은 교사가 56.9%로 맡고 있다 43.1%보다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한 연구대상자 중 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표 2>와 같이 2학년이 51.6%로 1학년 48.4%보다 많았다.

<표 2> 학생의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명)	백분율(%)
1학년	180	(48.4)
2학년	192	(51.6)
계	372	(100.0)

2. 자료 처리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학년별로 분류하고, 각 문항별로 반응척도에 따라 백분율(%)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우선 자료 확인과 입력절차를 SPSS(10.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기법으로는 교사와 학생의 데이터를 파악하기 위해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실업계고등학교 진학실태와 교사들의 진로지도 실태, 진로지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X^2(Chi-square)검증과 t-test(검증), 그리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분석

1. 실업계고등학교 진로지도 실태

1) 실업계고등학교 진학 실태

(1) 실업계고등학교 진학 이유

학생들이 실업계고등학교를 진학한 이유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이 대학 진학과 성적문제로 인해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28.0%로 같았으며, 다음으로 취업 가능성 때문이 16.4%, 본인의 적성에 맞추기 위해서가 14.8%, 주위의 권유가 6.5%로 나타났으며, 가정환경으로 인해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은 1.1%로 매우 적었다.

<표 3> 실업계고등학교 진학 이유

구분	본인의 적성 따라	취업 가능성	주위의 권유	대학진학 위하여	가정 환경	성적 문제	기타	계	X^2	p
1학년	27 (15.0)	32 (17.8)	16 (8.9)	49 (27.2)	3 (1.7)	45 (25.0)	8 (4.4)	180 (48.4)	17.2 (6)	0.01
2학년	28 (14.6)	29 (15.1)	8 (4.2)	55 (28.6)	1 (0.5)	59 (30.7)	12 (6.3)	192 (51.6)		
계	55 (14.8)	61 (16.4)	24 (6.5)	104 (28.0)	4 (1.1)	104 (28.0)	20 (5.4)	372 (100)		

** p<.01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취업가능성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많았고, 반면에 2학년 학생은 1학년 학생보다 대학 진학을 위하여와 성적문제로 인해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졸업 후의 진로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후 학생들의 진로계획을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다는 학생이 44.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에 진학

한다는 학생이 41.1%를 차지하였으며, 생각해 본적이 없다는 학생과 자영업이 각각 7.3%와 2.2%로 나타났다.

<표 4> 졸업 후의 진로

구분	취업한다	대학에 진학	자영업	생각해 본적 없다	기타	계	X^2	p
1학년	79 (43.9)	75 (41.7)	5 (2.8)	9 (5.0)	12 (6.7)	180 (48.4)	5.17 (6)	0.25
2학년	86 (44.8)	78 (40.6)	3 (1.6)	18 (9.4)	7 (3.6)	192 (51.6)		
계	165 (44.8)	153 (41.1)	8 (2.2)	27 (7.3)	19 (5.1)	372 (100)		

학년별로는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보다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다는 학생이 많았고,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대학 진학하겠다는 학생이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학년별로는 커다란 차이 없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한다와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학생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3) 취업후의 후의 진로

<표 5> 취업 후의 진로

구분	빈도(명)	백분율(%)
직장생활에만 전념	85	(51.5)
방송통신대학에 진학	13	(7.9)
야간 전문대학, 대학 진학	28	(17.0)
전문기술 습득위해 학원수강	33	(20.0)
기타	6	(3.6)
계	165	(100.0)

취업 후의 진로에 대한 학생들의 견해를 살펴본 결과는 <표 5>과 같이 직장생

활에만 전념하겠다는 학생이 51.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전문기술 습득을 위한 학원 수강이 20.0%, 야간 전문대학 또는 대학진학을 희망한 학생이 17.0%, 방송통신대학 진학이 7.9%로 나타났다. 이는 과거 인문계 고등학교는 물론 실업계고등학교 모두 대학 진학만을 고집하는 현상에 대해,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도 전문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풍조를 암시해주고 있다.

(4) 취업을 선택한 이유

취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의식을 살펴본 결과 <표 6>과 같이 사회에 일찍 진출하기 위해서 취업을 선택하려고 하는 학생이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학에 진할 할 실력 부족이 23.6%, 가정의 경제적 곤란으로 20.6% 그리고 주위사람들의 권유가 12.7%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에 일찍 진출하기 위해서 취업을 선택하는 학생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6> 취업을 선택한 이유

구분	빈도(명)	백분율(%)
사회에 일찍 진출하기 위해	64	(38.8)
대학에 진학할 실력이 부족해서	39	(23.6)
주위사람들의 권유로	21	(12.7)
가정의 경제적 곤란으로	34	(20.6)
기타	7	(4.2)
계	165	(100.0)

(5) 대학진학을 선택한 이유

대학진학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학생들의 견해를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이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진학을 선택하려는 학생이 47.7%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다음으로 주위 사람의 권유로 대학진학을 한다가 17.0%로 나타났다.

또한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 대학을 진학한다고 설문에 응한 학생은 15.0%,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9.8%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보다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았고, 1학년 학생은 2학년 학생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 대학을 가야 한다고 응답한 학생이 더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은 학년별 큰 차이는 없이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대학진학을 하려고 하는 학생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7> 대학진학을 선택한 이유

구분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더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	대학을 나와야 대우	주위 사람의 권유	기타	계	X^2 (df)	p
1학년	14 (18.7)	35 (46.7)	5 (6.7)	12 (16.0)	9 (12.0)	75 (100)	5.23 (3)	0.221
2학년	9 (11.5)	38 (48.7)	10 (12.8)	14 (17.9)	7 (9.0)	78 (100)		
계	23 (15.0)	73 (47.7)	15 (9.8)	26 (27.0)	16 (10.5)	153 (100)		

(6) 직업 선택 시 우선 고려 사항

학생들의 직업 선택 시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을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이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겠다는 학생이 46.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장래성 29.6%, 보수 21.0%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명예와 권력, 국가나 사회봉사 등은 각각 2.2%, 0.5%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이 2학년 학생보다 직업 선택 시 보수를 고려하겠다는 학생이 많았고, 2학년 학생은 1학년 학생보다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겠다는 학생이 더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학년별로 큰 차이 없이 직업 선택 시 적성과 흥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학생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8> 직업 선택 시 우선 고려사항

구분	적성과 흥미	보수	장래성	명예나 권력	국가나 사회봉사	계	X^2 (df)	p
1학년	80 (44.4)	48 (26.7)	47 (26.1)	4 (2.2)	1 (0.6)	180 (100)	2.67 (5)	0.621
2학년	94 (49.0)	30 (15.6)	63 (32.8)	4 (2.1)	1 (0.5)	192 (100)		
계	174 (46.8)	78 (21.0)	110 (29.6)	8 (2.2)	2 (0.5)	372 (100)		

(7) 실업계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만족도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한 것에 학생들이 만족하는지 알아본 결과 <표 9>와 같이 실력이나 가정형편상 어쩔 수 없다는 응답이 48.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만족은 못하지만 열심히 다니려고 한다가 30.1%, 그저 그렇다가 15.9%, 대단히 만족한다가 5.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9> 실업계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만족도

구분	대단히 만족한다	만족은 못하지만 열심히 다닐려고 한다	실력이나 가정형편상 어쩔 수 없다	그저 그렇다	계	X^2 (df)	p
1학년	12 (6.7)	48 (26.7)	86 (47.8)	34 (18.9)	180 (100)	2.67 (5)	0.621
2학년	10 (5.2)	64 (33.3)	93 (48.4)	25 (13.0)	192 (100)		
계	22 (5.9)	112 (30.1)	179 (48.1)	59 (15.9)	372 (100)		

학년별로는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보다 실력이나 가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는 학생과 만족은 못하지만 열심히 다니려고 한다는 학생이 많이 나타났고, 1학년 학생은 대단히 만족한다는 학생과 그저 그렇다는 학생이 2학년 학생에 비해 높이 나

타났다. 이상과 같이 학년별로 큰 차이 없이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에 실력이나 가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는 학생이 많은 것을 볼 때, 실업계 고등학생들은 실업계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실업계고등학교 진로지도 실태

(1) 진로교육 활성화 및 개선 방안

진로교육 활성화 및 개선 방법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이 진로교육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해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1.0%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연간 진로지도 계획 및 실천이 25.5%, 교과 학습을 통한 진로지도 교육실시가 22.5%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교육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해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0> 진로교육 활성화 및 개선 방법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연간 진로지도 계획 및 실천	25	(25.5)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용	52	(51.0)
진로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실시	1	(1.0)
교과 학습을 통한 진로지도 교육실시	23	(22.5)
계	165	(100.0)

(2) 진로지도의 활성화

진로지도의 활성화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표 11>와 같이 진로지도가 조금 이루어진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36.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별로 잘 안되고 있다가 36.3%, 잘되고 있다는 편이 18.6%, 전혀 안되고 있다가 3.9%, 매우 잘되고 있다가 2.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지도가 보다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진로지도의 활성화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안되고 있다	4	(3.9)
별로 잘 안되고 있다	37	(36.3)
조금 이루어 진다	40	(39.2)
잘되고 있는 편이다	19	(18.6)
매우 잘되고 있다	2	(2.0)
계	102	(100.0)

(3) 진로교육 시 애로점

교사들이 진로교육 시 느끼는 애로점에 대해 살펴본 결과 <표 12>와 같이 진로교육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교육 시 어려움을 느끼는 교사가 4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담시간 부족이 29.4%, 자격증 취득 후의 사회진출 정보부족이 12.7%, 교사 자신의 무관심이 10.8%, 학교관리자의 인식 부족이 2.9%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진로교육 정보가 부족하여 진로교육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진로교육시 애로점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학교관리자의 인식부족	4	(3.9)
진로교육 정보부족	37	(36.3)
상담시간 부족	40	(39.2)
자격증 취득후의 사회진출 정보부족	19	(18.6)
교사 자신의 무관심	2	(2.0)
계	102	(100.0)

(4) 학생들의 진로지도 담당자

학생들의 진로지도 주된 담당자가 어떤 교사인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이 담임교사가 84.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진로상담 주임교사와 전담교사가 각각 2.0%, 1.0%로 매우 낮게 조사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의 진로지도는 학급 담임교사가 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학생들의 진로지도 담당자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진로상담 전담교사	1	(1.0)
진로상담 주임교사	2	(2.0)
담임교사	86	(84.3)
기타	13	(12.7)
계	102	(100.0)

(5) 진로지도 횟수

학생들의 진로지도 횟수를 살펴본 결과 다음 <표 14>와 같이 진로지도를 가끔 한다가 58.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주 한다가 24.5%, 거의 안한다가 11.8%, 전혀 안한다는 교사가 2.9%, 항상 한다는 교사는 2.0% 로 나타났다.

14.7%의 교사가 진로지도를 거의 안하거나 전혀 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진로지도 횟수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항상 한다	2	(2.0)
자주 한다	25	(24.5)
가끔 한다	60	(58.8)
거의 안한다	12	(11.8)
전혀 안한다	3	(2.9)
계	102	(100.0)

3) 진로지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

(1) 진로지도의 의미

진로지도의 의미에 대한 교사들의 견해를 살펴본 결과 <표 15>와 같이 진로지도는 진학 및 취업지도를 의미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63.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애 지도를 의미한다고 인식하는 교사도 14.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진학지도를 의미한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11.8%로 비교적 낮았다. 따라서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진로지도는 진학 및 직업지도를 의미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의 궁극적 목적은 진학보다 취업에 우선되어 있다는 한 단면을 보여 주고 있다.

<표 15> 진로지도의 의미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진학지도를 의미	12	(11.8)
진학 및 직업지도를 의미	65	(63.7)
직업지도를 의미	10	(9.8)
생애지도를 의미	15	(14.7)
계	102	(100.0)

(2) 진로지도의 상담교사 활동

<표 16> 진로지도의 상담교사 활동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진학 및 추업에 대한 정보제공	47	(46.1)
진로 결정을 위한 상담활동	21	(20.6)
진로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에 대한 상담	22	(21.6)
취업을 위한 준비를 도와주는 일	12	(11.8)
계	102	(100.0)

진로지도의 상담교사의 활동 내용을 알아본 결과 <표 16>과 같이 진학 및 취업

에 대한정보 제공이 46.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진로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에 대한 상담 활동이 21.6%, 진로결정을 위한 상담활동이 20.6%, 취업을 위한 준비를 도와주는 일이 11.8%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진로지도 상담 교사 활동 내용으로 진학 및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가장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진로지도의 중요성

진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17>과 같이 진로지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82.3%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3.0%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진로지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7> 진로지도의 중요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아니다	1	(1.0)
아니다	2	(2.0)
보통이다	15	(14.7)
그렇다	69	(67.6)
매우 그렇다	15	(14.7)
계	102	(100.0)

(4)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정부의 지원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해 정부에서 지원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18>과 같이 다양한 진로지도 자료 개발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52.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모든 교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이 28.4%, 현직교사에 대한 진로지도에 관한 연수기회 확대가 11.8%,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가의 양성이 6.9%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정부의 지원으로 다양한 진로지도 자료 개발 보급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8>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정부의 지원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현직교사에 대한 진로지도에 관한 연수 확대	12	(11.8)
모든 교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	29	(28.4)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가의 양성	7	(6.9)
다양한 진로지도 자료 개발 보급	54	(52.9)
계	102	(100.0)

(5) 교육과정이나 특별활동 반영

진로지도 내용의 심화를 위해 교육과정이나 특별활동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9>와 같이 꼭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한 교사가 64.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반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가 24.5%, 생각해 본적이 없다가 8.8%, 반영할 필요가 전혀 없다가 2.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절반 이상의 교사들이 진로지도 내용의 심화를 위해 교육과정이나 특별 활동에 반영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9> 교육과정이나 특별활동에 반영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반영할 필요가 전혀 없다	2	(2.0)
반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25	(24.5)
꼭 반영해야 한다	66	(64.7)
생각해 본적이 없다	9	(8.8)
계	102	(100.0)

(6) 진로지도 시 고려 사항

교사들이 진로지도 시 고려하는 사항을 살펴본 결과 <표 20>과 같이 학생의 적성을 고려하겠다는 교사가 7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장래전망이 14.7%, 학생의 의견이 6.9%순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의 성적과 학부모의 요구가 각각 2.9%로 나타났으며, 직장의 보수는 2.0%로 매우 적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생들의 진로지도 시 학생이 적성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0> 진로지도 시 고려사항

구 분	빈도(명)	백분율(%)
학생의 성적	3	(2.9)
학생의 적성	72	(70.6)
직장의 보수	2	(2.0)
학부모의 요구	3	(2.9)
장래 전망	15	(14.7)
학생의 전공	0	-
학생의 의견	7	(6.9)
학교의 명예	0	-
계	102	(100.0)

(7) 학교 관리자의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

학교 관리자의 진로지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21>과 같이 학교 관리자의 진로지도가 적극적이라고 인식하는 교사가 30.4%로 부정적이라고 인식하는 교사의 2.9%보다 많았으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교사가 66.7%로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교관리자의 진로지도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1> 학교 관리자의 진로지도에 관한 인식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부정적이다	0	-
부정적이다	3	(2.9)
보통이다	68	(66.7)
적극적이다	26	(25.5)
매우 적극적이다	5	(4.9)
계	102	(100.0)

4)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의 인식

(1) 진로지도 상담 교사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상담은 주로 어떤 교사와 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22>와 같이 담임교사가 진로지도 상담을 한다고 인식한 학생이 8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기타 10.8%로 비교적 많았으며, 진로상담부(장)교사가 3.0%로 진로상담 관련 교사가 상담에 임한다는 비중은 매우 적었다.

<표 22> 진로지도 상담 교사

구분	진로지도 전담교사	진로상담부(장) 교사	담임교사	기타	계	X^2 (df)	p
1학년	1 (0.6)	6 (3.3)	158 (87.8)	15 (8.3)	180 (100)	18.51 (4)	0.001
2학년	0 (0)	5 (2.6)	162 (84.4)	25 (13.0)	192 (100)		
계	1 (0.3)	11 (3.0)	320 (86.0)	40 (10.8)	372 (100)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담임교사가 진로지도 상담을 더 많이 한다고 인식하였고, 2학년 학생은 1학년 학생보다 기타 교사가 진로지도 상담을 한다고 인식하는 학생 비중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진로지도 상담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X^2=18.51, p<.01).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담임교사가 진로지도 상담을 가장 많이 하고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담임교사가 진로지도 상담을 많이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진로지도 정도

교사들의 진로정도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23>과 같이 36.3%의 학생들은 선생님이 진로지도를 그다지 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표 23> 진로지도 정도

구분	전혀 안 해주신다	드물게 해주신다	그저 그렇다	가끔해 주신다	항상 해 주신다	계	X^2 (df)	p
1학년	16 (8.9)	55 (30.6)	62 (34.4)	34 (18.9)	13 (7.2)	180 (100)	3.38	0.01
2학년	15 (7.8)	49 (25.5)	55 (28.6)	44 (22.9)	29 (15.1)	192 (100)		
계	31 (8.3)	104 (28.0)	117 (31.5)	78 (21.0)	42 (11.3)	372 (100)		

학년별로는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학생들보다 선생님께서 자주 진로지도를 하여 주신다고 인식한 반면,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선생님이 진로지도를 자주 안 해주신다고 인식하였다.

(3) 진로지도 시 구체적 자료의 제시

진로지도 시 선생님의 구체적 자료 제시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24>와 같이 '아니다'가 33.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7.7%, '그렇다'가 25.3%, '매우 그렇다'가 9.1%, '매우 아니다'가 4.8%를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진로지도 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가 1학년이 2학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경우는 2학년이 1학년보다 높게 나왔다.

<표 24> 진로지도 시 구체적 자료 제시

구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X^2 (df)	p
1학년	10 (5.6)	67 (37.2)	55 (30.6)	39 (21.7)	9 (5.0)	180 (100)	2.88	0.04
2학년	8 (4.2)	56 (29.2)	48 (25.0)	55 (28.6)	25 (13.0)	192 (100)		
계	18 (4.8)	123 (33.1)	103 (27.7)	94 (25.3)	34 (9.1)	372 (100)		

(4) 진로 선택 시 도움을 원하는 대상

학생들이 진로 선택 시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대상에는 <표 25>와 같이 진로선택 시 교사의 도움을 원한다는 학생이 44.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본인 16.9%, 부모나 친척 16.4%, 친구나 선배 15.9% 기타 5.9%로 나타났다.

<표 25> 진로선택 시 도움을 원하는 대상

구분	부모나 친척	교사	친구나 선배	본인	기타	계	X^2 (df)	p
1학년	32 (17.8)	85 (47.2)	24 (13.3)	31 (17.2)	8 (4.4)	180 (100)	4.67	0.215
2학년	29 (15.1)	82 (42.7)	35 (18.2)	32 (16.7)	14 (7.3)	192 (100)		
계	61 (16.4)	167 (44.9)	59 (15.9)	63 (16.9)	22 (5.9)	372 (100)		

학년별로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부모나 친척의 도움, 교사의 도움을 원했고, 2학년 학생은 1학년 학생보다 친구나 선배의 도움을 더 원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학년별로 커다란 차이 없이 진로 선택 시 교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진로 선택 시 전공과의 관련성 제시

학생들이 진로지도 시 전공과의 관련성을 제시해 주는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26>과 같이 '아니다'가 5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19.1%, '그렇다'와 '매우 아니다'가 13.7%, '매우 그렇다'가 2.7% 순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진로지도 시 전공과의 관련성 제시해 준다고 인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학년별로 커다란 차이 없이 진로지도 시 교사들이 전공과의 관련성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진로지도 시 전공과의 관련성 제시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계	X^2 (df)	p
1학년	4 (2.2)	22 (12.2)	44 (24.4)	92 (51.1)	18 (10.0)	180 (100)	3.21	0.23
2학년	6 (3.1)	29 (15.1)	27 (14.1)	97 (50.5)	33 (17.2)	192 (100)		
계	10 (2.7)	51 (13.7)	71 (19.1)	189 (50.8)	51 (13.7)	372 (100)		

(6) 진로지도의 중요성

진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27>과 같이 '매우 중요하다'와 '중요하다'가 60.8%로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의 18.8%보다 훨씬 높아 학생들은 진로지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별로는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보다 진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해 더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학년별로 커다란 차이 없이 학생들은 진로지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7> 진로지도의 중요성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계	X^2 (df)	p
1학년	42 (23.3)	60 (33.3)	42 (23.3)	32 (17.8)	4 (2.2)	180 (100)	2.54	0.78
2학년	51 (26.6)	73 (38.0)	34 (17.7)	32 (16.7)	2 (1.0)	192 (100)		
계	93 (25.0)	133 (35.8)	76 (20.4)	64 (17.2)	6 (1.6)	372 (100)		

(7)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28>과 같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35.8%, '아니다'와 '매우 아니다'가 27.5%로 학생들은 긍정적인 요소가 높이 나타났으나 진도지도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보다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학년별로 커다란 차이 없이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8>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계	X^2 (df)	p
1학년	28 (15.6)	33 (18.3)	64 (35.6)	33 (18.3)	22 (12.2)	180 (100)	2.22	0.62
2학년	33 (17.2)	39 (20.3)	73 (38.0)	29 (15.1)	18 (9.4)	192 (100)		
계	61 (16.4)	72 (19.4)	137 (36.8)	62 (16.7)	40 (10.8)	372 (100)		

5) 진로지도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

(1)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

진로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9>와 같이 진로지도가 미흡하다고 인식한 교사가 3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체로 만족한다는 30.4%, 그저 그렇다 29.4% 순으로 나타났으며, 매우 만족한다는 교사는 2.9%로 매우 적었다. 따라서 교사들은 학교의 진로지도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29> 진로지도에 대한 만족도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미흡하다	-	-
미흡하다	38	(37.3)
그저 그렇다	30	(29.4)
대체로 만족한다	31	(30.4)
매우 만족한다	3	(2.9)
계	102	(100.0)

(2) 진로지도 방법의 효과성

진로지도 방법의 효과성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30>과 같다.

<표 30> 진로지도 방법의 효과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	-
효과가 없는 편이다	19	(18.6)
그저 그렇다	52	(51.0)
효과적인 편이다	27	(26.5)
매우 효과적이다	4	(3.9)
계	102	(100)

<표 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저 그렇다고 한 교사가 51.0%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효과적인 편이다 26.5%, 효과가 없는 편이다 18.6%, 매우 효과적이다 3.9%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들은 진로지도 방법의 효과성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의 충분성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교육 정보의 충분성에 대해 <표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저 그렇다가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부족하다가 40.2%, 충분하다 4.9%, 매우 부족하다가 2.9%, 매우 충분하다 1.0%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사

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의 충분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부족하다	3	(2.9)
부족하다	41	(40.2)
그저 그렇다	52	(51.0)
충분하다	5	(4.9)
매우 충분하다	1	(1.0)
계	102	(100.0)

(4)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

<표 32>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아니다	-	-
아니다	16	(15.7)
보통이다	55	(53.9)
그렇다	26	(25.5)
매우 그렇다	5	(4.9)
계	102	(100.0)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본 결과는 <표 32>와 같이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인식한 교사가 31.0%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15.7%보다 많았으나 '보통이다'에 53.9%로 절반 이상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을 보면 <표 33>과 같이 '그렇다'고 인식한 교사가 55.8%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 13.7%보다 많았으며, '보통이다'에 30.4%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비교적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아니다	1	(1.0)
아니다	13	(12.7)
보통이다	31	(30.4)
그렇다	54	(52.9)
매우 그렇다	3	(2.9)
계	102	(100.0)

6)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1) 진로지도의 효과

<표 34> 진로지도의 효과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계	X^2 (df)	p
1학년	35 (19.4)	62 (34.4)	50 (27.8)	32 (17.8)	1 (0.6)	180 (100)	3.2	0.01
2학년	42 (21.9)	60 (31.3)	51 (26.6)	38 (19.8)	1 (0.5)	192 (100)		
계	77 (20.7)	122 (32.8)	101 (27.2)	70 (18.8)	2 (0.5)	372 (100)		

학생들의 진로지도 효과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34>와 같이 53.5%의 학생들이 진로지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19.3%의 학생들만 진로지도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의 충분성에 대해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35>와 같이 전체 평균 66.2%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 정보가 그다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학년별로 2학년 학생이 66.7%로, 1학년 학생 65.5%보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가 그다지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35>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

구분	매우 충분하다	충분하다	보통이다	부족하다	매우 부족하다	계	X^2 (df)	p
1학년	7 (3.9)	20 (11.1)	35 (19.4)	67 (37.2)	51 (28.3)	180 (100)	5.22	0.06
2학년	8 (4.2)	23 (12.0)	33 (17.2)	85 (44.3)	43 (22.4)	192 (100)		
계	15 (4.0)	43 (11.6)	68 (18.3)	152 (40.9)	94 (25.3)	372 (100)		

(3) 선생님의 진로지도에 대한 호응도

선생님의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를 알아본 결과는 긍정적인 응답이 27.9%로, 부정적인 응답 30.4%보다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은 선생님의 진로지도에 학생들의 호응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선생님의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인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학년별로 커다란 차이 없이 선생님의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가 그다지 높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표 36> 선생님의 진로지도에 대한 호응도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계	X^2 (df)	p
1학년	10 (5.6)	43 (23.9)	68 (37.8)	44 (24.4)	15 (8.3)	180 (100)	3.21	0.23
2학년	9 (4.7)	42 (21.9)	87 (45.3)	40 (20.8)	14 (7.3)	192 (100)		
계	19 (5.1)	85 (22.8)	155 (41.7)	84 (22.6)	29 (7.8)	372 (100)		

7) 교사의 진로지도를 위한 준비

(1) 적성검사의 필요성

진로지도를 위한 인성 및 적성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표 37>과 같이 진로지도를 위해 인성 및 적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사가 98.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교사는 2.0%로 매우 적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진로지도를 위해 인성 및 적성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7> 적성검사의 필요성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필요치 않다	2	(2.0)
조금 필요하다	55	(53.9)
매우 필요하다	45	(44.1)
계	102	(100.0)

(2) 진로지도에 대한 정보수집 노력

진로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정보수집 노력 정도를 살펴본 결과 <표 38>과 같이 진로지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노력하는 교사가 28.5%로, 그렇지 않은 교사 15.7%보다 약간 높은 결과를 보였다. 진로지도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그다지 노력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8> 진로지도에 대한 정보수집 노력

구 분	빈도(명)	백분율(%)
매우 많이	2	(2.0)
약간	27	(26.5)
보통	55	(53.9)
거의 안함	12	(11.8)
안함	6	(5.9)
계	102	(100.0)

(3)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 여부

교사들은 진로지도 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지 여부를 살펴본 결과 <표 39>와 같이 진로지도 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교사가 31.3%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교사 15.7%보다 많았으며, 보통이다 에 52.9%로 절반 이상의 교사가 응답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은 진로지도 시 구체적인 자료를 그다지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9> 구체적인 자료의 제시 여부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전혀 아니다	3	(2.9)
아니다	29	(28.4)
보통이다	54	(52.9)
그렇다	15	(14.7)
매우 그렇다	1	(1.0)
계	102	(100.0)

8) 학생들의 부모 직업에 대한 인식

(1) 부모님 직업

학생들의 부모님 직업을 살펴본 결과는 <표 40>과 같이 농업이 5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무직 11.8%, 노무직 10.2%, 판매서비스직 7.5%, 기술직 3.0%, 일반사무직 1.9%, 공무원 1.6% 순으로 나타났다.

<표 40> 부모님 직업

구분	공무원	판매 서비스직	일반 사무직	기술직	노무직	자영업	농업	무직	계	X^2 (df)	p
1학년	3 (1.7)	12 (6.7)	3 (1.7)	6 (3.3)	18 (10.0)	18 (10.0)	92 (51.1)	28 (15.6)	180 (100)	4.67 (5)	0.54
2학년	3 (1.6)	16 (8.3)	4 (2.1)	5 (2.6)	20 (10.4)	19 (9.9)	109 (56.8)	16 (8.3)	192 (100)		
계	6 (1.6)	28 (7.5)	7 (1.9)	11 (3.0)	38 (10.2)	37 (9.9)	201 (54.0)	44 (11.3)	372 (100)		

학년별로는 2학년 학생이 1학년 학생보다 부모님 직업이 농업과 판매서비스직이 많았고, 1학년 학생은 2학년 학생보다 부모님 직업이 자영업과 기술직이 많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만족도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표 41>과 같이 전체 평균 46.8%의 학생들이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 부모님 직업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 한다	매우 불만족한다	계	X^2 (df)	p
1학년	10 (5.6)	47 (26.1)	41 (22.8)	68 (37.8)	14 (7.8)	180 (100)	3.21	0.23
2학년	9 (4.7)	49 (25.5)	42 (21.9)	75 (39.1)	17 (8.9)	192 (100)		
계	19 (5.1)	96 (25.8)	83 (22.3)	143 (38.4)	31 (8.3)	372 (100)		

학년별로는 1학년 학생이 2학년 학생보다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상과 같이 학생들은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부모님의 직업에 대한 불만족하는 이유

학생들이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 42>와 같이 부모님이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직업에 불만족하는 이유가 4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수입이 적기 때문에 24.1%, 사회적 지위가 낮기 때문에 21.3%, 안전성이 적고 위험하기 때문에 9.2%, 시간이 없고 힘들어 보여서 4.0%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님 직업이 부모님이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직업에 대해 불만족하는 학생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2> 부모님의 직업에 불만족하는 이유

구 분	빈도(명)	백분율(%)
수입이 적기 때문에	42	(24.1)
사회적인 지위가 낮기 때문에	37	(21.3)
안전성이 적고 위험하기 때문에	16	(9.2)
부모님이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72	(41.4)
시간이 없고 힘들어 보여서	7	(4.0)
계	174	(100.0)

2.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지도 실태와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진로지도에 대한 이론적 연구와 통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전남지역 실업계고등학교 재학생 1, 2학년과 교사를 중심으로 하여 재학생 450명, 교사 150명 대상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배부하였는데 재학생 372명, 교사 102명이 응답하여 이를 분석하여 일반적인 사항, 진로지도 실태, 진로지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인식, 진로지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 교사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준비도 등 영역으로 구분하여 설문지를 통한 실증적 분석을 하였다.

1) 실업계고등학교 진학실태

(1) 실업계고등학교 진학 이유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유가 대학진학과 성적문제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각각 104명(28.0%)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의 적성과 취업가능성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한 경우는 겨우 116명(31.2%)에 불과하며 이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설립 취지인 기술인 양성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성적이 좋지 않거나 보다 쉽게 대학에 진학하려는 목적을 갖고 실업계로의 진학을 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손세혁(2004)의 실업계고등학교 선택 동기에 있어 인문계 진학이 어려워서 실업계에 진학했다는 비율 32%와 직업 선택을 위해서 진학했다는 비율 26.4%와 큰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졸업 후의 진로

'취업한다'가 165명(44.4%)이고 '대학에 진학한다'가 153명(41.1%)순이었다. '취업한다'의 165명 중 순수하게 '계속 직장생활에만 전념한다'는 85명(51.5%)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야간 전문대학이나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업계고등학교의 진로지도가 단지 취업지도 일변도로 흐르는 경향에서 진학지도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해야 됨을 알 수 있다.

이성환(1999)의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선택 성향 및 직업관에 관한 조사 연구'에서 직업을 선택한다는 비율 39.2%와 진학한다는 비율 44.8%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경우 경제구조에 있어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하고 경제 수준도 낮아 다른 지역과 비교해 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대학 진학을 선택한 이유

대학 진학을 선택한 153명(41.1%)의 학생에 대해 선택 이유를 알아본 결과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가 73명(47.7%)이고 주위사람의 권유 26명(17.0%)으로 전공을 살려 기술 습득을 위해 대학에 진학하기보다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단순 기능인에 대한 인식부족과 현실적인 소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대학에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안기삼(2002)의 '진로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서 대학진학을 하는 이유에 좀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다는 46%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4)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만족도

실업계고등학교에 대한 만족도는 '실력이나 가정 형편상 어쩔 수 없다'는 학생이 179명(48.1%)이고 '만족은 못하지만 열심히 다니려고한다'가 112명(30.1%)으로 응답 학생들은 대체로 그다지 만족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생 스스로 적성이나 희망에 따라 진학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적인 요소(성적문제, 가정형편 등)에 의해 진학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손세혁(2004)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관 및 진로선택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20%), 보통이다(32%), 불만족이다(45%)와의 결과와 큰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실업계고등학교 진로지도 실태

(1) 진로지도 활성화 정도 및 개선에 대한 인식

진로지도의 활성화 정도에선 '진로지도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가 40명(39.2%), '별로 잘 안되고 있다'가 37명(36.3%)으로 '잘되고 있다'의 21명(20.6%)에 비해 전체

적으로 진로지도가 그다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지도의 개선에 대한 방법으로선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용'이 52명(51.0%), 연간 진로지도 계획 및 실천이 26명(25.5%)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곽유석(2001)의 '공업고 학생들의 직업관 및 진로만족에 관한 조사연구'에서 진로지도 실태에 대해 '진로지도가 조금 이루어지고 있다' 36.0%, '별로 잘 안되고 있다' 32.0%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학생 진로지도의 담당자 및 애로점

학생들의 진로지도 담당자 및 애로점을 살펴보면 설문에 대한 답변의 86명(84.3%)이 담임교사가 진로지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진로 상담교사가 담당한다는 응답은 3명(3%)에 불과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담임교사가 진로지도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담임교사는 학교 성적관리 및 진학지도나 생활지도 등 학생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진로에 대한 상담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담임교사가 진로지도 시 가장 큰 애로점이라고 느끼는 질문에선, 진로교육 정보부족을 느끼는 교사가 45명(44.1%)으로, 상담시간 부족 30명(29.4%)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라남도의 경우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으로 진로 전문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데이터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려 된다. 교육당국은 일반교사들에게 진로상담의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그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연수기회의 확대를 제공해 주어야 하며, 교사 스스로도 각종 정보를 수집 활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3) 진로지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

(1) 진로지도의 의미와 상담 교사의 역할

진로지도의 의미에 대한 교사의 견해는 '진학 및 직업지도를 의미 한다'가 65명(63.7%), 다음으로 '생애지도를 의미 한다'가 15명(14.7%)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지도에 있어 실업계고등학교는 진학만, 또는 직업지도만이 아닌 진학과 직업지도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학생들이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한 이유와 서로 상통된다고 본다.

이는 한규원(2003)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과 효율적인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에서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진로지도의 내용과 일면 상통한 점이 있다.

(2) 진로지도의 중요성과 정부의 지원

대부분의 교사들은 진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해 84명(82.3%)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54명(52.9%)이 '다양한 진로지도 자료 개발 보급'을 29명(28.4%)이 '모든 교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할것' 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교과를 통하여 배운 지식이나 기술을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적용하고 활용하여 봄으로서 보다 심화,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 본다.

(3) 진로지도 시 고려사항 및 학교 관리자의 인식

진로지도 시 고려사항은 '학생의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지도를 하는 경우가 72명(70.6%)이고 '장래전망'을 고려하여 진로지도를 하는 경우가 15명(14.7%)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지도에 대한 학교 관리자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보통이다'가 68명(66.7%), '적극적이다'에 26명(25.5%)으로 그다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규원(2003)의 진로지도 시 고려해야 할 내용 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1) 진로선택 시 도움을 원하는 대상

진로선택 시 도움을 원하는 대상은 교사의 도움을 원하는 대상이 167명(44.9%), 본인 스스로가 63명(16.9%), 부모나 친척 61명(16.4%)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교사와 상담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담임교사가 320명(86.0%), 비담임 교사가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상담 교사와는 그다지 진로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진로지도 상담이 극히 제한적이고 형식

적이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안기삼(2002)의 장래 진로 결정시 희망하는 상담자로 부모 40%, 선생님 17.6%, 친구나 선배 23.4%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라남도의 경우 타 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이고, 조부모 또는 편모 편부의 가정환경이 많은 관계로 담임선생님에 대한 의존이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 때문 나타난 결과라고 알 수 있다.

(2) 교사들의 진로지도 정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자료 제시 정도

진로지도의 효과에 대해 199명(53.5%)의 학생들이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으며, 진로지도 시 구체적인 자료 제시 면에서도 전체 평균 240명(64.5%)이 자료를 제시 한 채 진로상담이 이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진로상담 교사 등 전문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서도 인터넷 등의 확산으로 자료수집이 용이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3) 진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

진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226명(60.8%)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도는 전체 평균 133명(35.8%)으로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이거나 체계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접하지 못한 결과로, 안기삼(2002)의 진로교육 방법의 분석 결과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진로지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

(1) 교사 스스로 만족도

진로지도에 대한 교사들의 만족도는 '진로지도가 미흡하다'로 인식한 교사가 38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그저 그렇다'가 30명(29.4%)으로 그다지 만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진로지도 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그저 그렇다'가 52명(51.0%), '효과적이다'가 34명(33.3%)으로 교사들은 자신들의 진로지도 방법에 대해 효과적이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2)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도 및 관심

진로지도 시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다'고 인식한 교사가 31명(30.4%)으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한 교사 16명(15.7%)보다 많았으나 절반 이상의 교사가 '보통이다'에 응답하여 학생들의 호응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는 '관심이 있어 보인다'고 인식한 교사가 57명(55.8%)으로 '그렇지 않다'고 인식한 교사 14명(13.7%)보다 많아 학생들이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진로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학생들이 느끼는 진로지도의 효과는 그렇다가 199명(53.5%)으로 선생님의 진로지도의 효과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진로지도 정보의 충분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그다지 충분하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진로지도에 대한 교사의 만족도를 분석해보면 학생들은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은데 반해, 진로지도 교사는 스스로 만족과 진로지도 방법에 있어 모두 그다지 만족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교사와 학생의 진로지도에 대한 가치 기준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6) 교사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준비

(1) 적성검사의 필요성

인성 및 적성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교사인 100명(98.0%)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진로지도 상담 시 인성 및 적성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2) 교사 스스로 정보수집 노력

진로지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 노력하는 교사'가 29명(28.5%)으로, '그렇지 않는 교사' 18명(17.7%)보다 높았으나 '보통이다'에 55명(53.9%)으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보였다. 따라서 진로지도에 대한 정보수집 노력을 그다지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진로지도 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교사'가 32명(31.3%), '제시하는 교사'가 16명(15.7%)으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진로지도 시 구체적인 자료를 그다지 제공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진로 준비 시기인 고등학교에서 전공을 선택한 후, 취업과 상급학교 진학을 앞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관과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실태를 파악하여 학생들의 진로선택에 대한 여러 요인을 분석하고 올바른 직업의식을 갖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지도 실태와 그 개선 방안을 연구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진로교육의 목표는 다양하게 변화 발전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학생들이 변화의 주체로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는데 있고, 다양한 일과 직업의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진로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의미 있는 삶을 준비하도록 하는데 있다(대한 사립 중·고등학교회, 1996).

이와 같이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개인에게도 매우 중요하지만 국가나 사회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적재적소 능력에 맞는 인력이 배치되어 사회가 원활히 돌아가고 개개인의 삶이 행복하다면 그것보다 좋은 사회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업계고등학교를 진학하는 학생들의 목적은 직업교육을 받은 후 바로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의 실무를 담당하는데 있다. 직업지도를 위해서는 기본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게 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신념과 긍지를 지닌 직업인이라는 뚜렷한 직업관을 갖출 수 있도록 진로지도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에서는 다양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현명한 진로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진로탐색을 할 수 있도록 진로와 관련된 여러 활동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진로의식의 성숙과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촉진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에 실업계고등학교의 진로지도 실태와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지를 통해 조사, 분석을 하였다. 본 장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결과를 근거로 하여 진로지도 실태를 살펴보고,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주요 결론을 내

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대체로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적성과 흥미보다는 성적문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입학하였기 때문에 학생들이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돕는 지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이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관리자와 교사 모두가 노력을 하여야 하며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특기나 소질을 발견하여 신장 시켜주는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대부분은 사회의 학벌위주의 관습 때문에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목표인 산업기능 인력 양성과는 거리가 먼 상급학교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실업계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실업계고등학교 출신에 대한 교육정책이나 사회에서의 경제적 대우를 시급히 개선하여야 하며, 그들이 대학진학을 희망할 경우 동일계 특별전형 확대와 기능대학과 산업대학의 확대 입학 등으로 학생들이 목표달성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리라 본다.

셋째, 많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 진로로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진학을 원하는 이유는 우리사회가 아직도 학벌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업계고등학교는 취업뿐만 아니라 진학지도도 병행하여야 한다.

넷째, 진로지도가 보다 내실 있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변화하는 사회에 유연하게 대처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의 변화가 요구된다.

다섯째, 진로지도를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진로지도의 교육과정 개설도 필요하다고 본다.

여섯째,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시 담임교사가 주로 맡고 있는데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유지 또는 기업체 퇴직자등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고, 현실성 있는 진로지도가 이루어 질 경우 학생들은 좀더 흥미와 관심이 높아지리라 본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진로지도에 대한 방법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시해 주는 것으로부터 학생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나 이들 정보를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터넷 사이트 이용과 진로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진로지도 개선 방안

허만길(2001)에 의하면 우리나라 진로교육은 개개인의 가치로운 진로 개척에 힘이 되어야 한다. 실업계 고교 재학생으로서 중도 탈락이 많다는 것은, 고교 입학 당시 자기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지 않는데도 실업계 고교를 택할 수밖에 없었거나, 입학 후 교육 내용이나 환경이 자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나 등 그만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이므로, 이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실업계 고교 재학 생활 적응 진로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오늘날 실업계고등학교는 중학교 성적이 하위인 학생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개성과 적성에 맞는 진로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 깊이 깔려 있는 고학력 위주의 인문숭상 교육의 풍토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직업교육이 주목적이었던 실업계고등학교가 사회적 상황과 여건들이 변함에 따라 점차 취업과 진학이라는 엇갈리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진로지도로 그 모습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실증연구를 통하여 밝혀진 실업계고등학교 진로지도상의 문제점과 학생들의 불만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실업계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입학 동기는 적성과 흥미 또는 가정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입학하기보다는 성적부진으로 인문계고등학교에 진학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입학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학생들은 입학할 때부터 패배감과 좌절감으로 학교생활에 관심이 없고 삶에 대한 목표가 흐려져 부적응 행동이나 일탈행동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의 고교진학 지도 시에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목표와 진로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학생들 자신의 적성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적 때문에 진학하는 태도는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진로지도의 실태를 보면 학교에서 진로지도가 그다지 활성화 되어 있지 않

고 있으며, 또한 진로지도 시 각종 정보의 부족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느끼고 있다. 따라서 관계 기관에서는 진학 및 취업에 대한 각종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작하여 일선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교사 스스로도 진로에 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진로지도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아니면 기업퇴직자 나 유경험자 등 지역사회 인사를 초빙하여 학교에서 진로지도를 활용하면 좀 더 흥미 있고 활성화 되는 진로교육이 되리라 본다.

셋째, 진로지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진로지도 시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거나 학생 진로의식 개선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체계적이고 좀더 효과적으로 진로지도를 접하지 않을까 본다.

넷째,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로지도 시 담임교사와 주로 상담활동이 이루어지며 상담교사와 상담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교사는 주로 생활지도 상담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진로지도 상담은 극히 제한적이고 형식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진로지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진로지도를 담당할 수 있는 교사를 증원하고 각종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정책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다섯째, 진로지도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만족도에선 교사와 학생 모두 진로지도가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진로지도 효과에 대해선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로지도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천되지 못하고 학교에서 진로지도 형태가 전형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 학생들의 다양한 선택의 폭을 제시하여 주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진로지도를 진학이나 취업으로 국한하여 단편적으로 지도하기보다는 저학년에서부터 학생에게 맞는 진로를 같이 찾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진로지도를 위한 준비로는 많은 교사들이 진로지도에 대한 정보수집 노력을 그다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는데 장애가 되고 있고 불만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에서의 교사간의 진로 정보공유와 각종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일곱째, 많은 학생들이 미래에 보다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을 나와야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학력위주의 사회적 인식과 인문선호의 전통적인 직업관으로 말미암아 고졸학력으로는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나친 인문주의 숭상과 고학력 위주의 사회풍토는 학생들에게 무력감을 느끼게 할뿐만 아니라, 뚜렷한 목적의식 없이 대학진학만을 선호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력보다 능력을 중시하는 올바른 진로선택을 저해하는 요인으로서 국가적으로 커다란 인력의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고졸 학력으로도 자기의 적성과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여 성실히 생활하면 굳이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대우나 신분상에 차별 받지 않는 사회풍토가 되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상급학교 진학 욕구와 진학률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내신과 특별전형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입학하는 학생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취업지도만을 목적으로 진로지도를 하는 것은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 자체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야기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학에 대비한 교육과,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취업에 대비한 직업교육으로 진로지도를 이원화하여야 할 것이다.

아홉째, 학생들은 컴퓨터나 정보기술 분야에 흥미는 있는 편이나, 기초학력이 낮은 관계로 자격증 취득률이 낮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흥미만을 자극하는 나열식의 교육보다는 기술관련 기능사,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과 같은 자격증은 반드시 취득하도록 권장하고 도와줌으로서 성취감과 자기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실업계고등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점은 학교나 교사, 또는 학생들과 같은 교육의 현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으로 야기된 부분이 더 크고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실업계고등학교는 취업준비를 위한 직업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은 거의 대부분 상실하고 이미 진학과 관련한 역할로의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실업계고등학교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실업계고등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신설 및 동일계 특별전형 확대와 같은 제도적 정책적 장치 외에 더 나아가 고등학교 3년에 전문대학 2년을 가미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 제도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여야 할 것이다.

3. 제 언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앞으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시간과 능력 등의 한계로 전남지역 실업계고등학교 학생 372명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실업계고등학교의 공통된 현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리라 본다.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계당국에서는 정책적, 사회적으로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진로의식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교사들이 진로상담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많이 부족하므로 교사들의 각종 업무를 줄어야 하며, 전문적으로 진로지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하거나 지역사회와 인사를 적절히 활용하는 진로교육이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의 가치관이 변함에 따라 직업관도 변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학교현장에서도 입시위주의 교육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연구와 가치관 변화를 위한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맞이하여 IT(Information Technology),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산업구조의 개편 지역사회의 급격한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실업계고등학교의 진로지도 체계는 변화되어야 한다. 이미 보편화된 평생 학습사회라는 사회여건을 고려하면서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직업세계로의 진출, 혹은 대학진학에 대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도와

줌으로써 생산적인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담당하며 직무와 직업에 대한 만족감 증대를 통하여 질 높은 삶은 향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로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로지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에 있어 인문계와 실업계와의 비교하는 연구가 선행된다면 좀더 실업계고등학교 진로지도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본다.

참고 문헌

곽유석(2001).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관 및 진로만족에 관한 조사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교육부, 「2000년 실업계 고등학교 현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0, p.14

김병숙(1986). **한국여성의 진로결정에 관한 인과적 모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용혁(1994). **상업계 고교생의 효율적인 직업진로 지도에 관한 연구,** 상교논총, 8, 135-136.

김원태(1996). **실업계 고교생의 진로교육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인애(2002). **상업계 여고생의 진로의식와 효율적인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강창규(2004). **농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창일(2002).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선택 개선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충기(1989). **진로교육의 본질**, 평민사.

김충기(1995), **미래를 위한 진로교육**, 양서원.

나인옥(1994). **고등학생의 진로의식 분석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대한사립 중・고등학교회, **진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1996, p221

민효진(2005).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문 진로 선택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부산광역시교육연구원(1997), **진로상담교육의 이론과 실제**, 부산:부산광역시교육연구원

서울특별시교육과학연구원(1999).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999, p89-90

서정열(1992), **고교생의 직업진로지도에 관한 연구-상업계고교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세혁(2004).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관 및 진로선택에 관한 실태조사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손양수(2001).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의식변화에 따른 올바른 진로지도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안기삼(2002). **진로지도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서부경남 상업계고교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무근(1999). **직업교육학 원론.** 서울: 교육과학사

이성환(1999). **공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선택 성향 및 직업관에 관한 조사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국(2003), 진로교육의 최근 동향. **진로교육연구**, 16(2), 1-27

이재창(1997). **한국청소년 진로상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 : 청소년 대화의 광장

이재창(1998). 진로교육과 직업진로지도의 문제점 및 산학연계방안. **진로교육연구**, 9, 45-74

이정근(1988). **진로지도의 실제.** 서울: 서원사.

정인숙(2003).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과 효율적인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혜란(2001).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직업관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강은(1996). **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직업가치관 및 진로의식에 관한 조사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미자(2002).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한국교육개발원(1995). **진로교육 체제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1). **실업계고교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허만길(2001), 국가인적자원개발과 중등학교 진로교육. **진로교육연구**, ***13***, 39-60

한규원(2003).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의식과 효율적인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허 현(2000).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홍우표(2001). **종합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선택 및 지도에 관한 실태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ailey, L. J, & Stadt, R.(1973). *Career education : New approches to human development.* Bloominton, IN : Mckinght Publishing.

Calfrey, C. C, & Alton, V. F. (1982). *Vacational education* : Concepts and operations. Wadsworth publishing Co.

Piaget, J. (1969). *The child's conception of time. London* : Routledge & Kegan Paul.

Taylor, R. E,(1972). Career education : Implication for increased educational relevancy. Paper presented at the Central New York School Council, Career Education Conference, Oct, 1972.

설문지(교사용)

안녕하십니까?
학교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며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05. 5.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이 영 동

※응답요령 : 해당하는 사항에 **하나만** 표기하여 주십시오.

개 인 사 항		
성 별	남	여
연 령	만_____세	
결혼관계	기 혼	미 혼
경 력	_____년	
직위여부	부장교사	평교사
담임유무	맡고 있다 (___년 담임)	맡고 있지 않다.

1. 귀교에서 학생들의 진로지도는 주로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① 진로상담 교사 ② 담임교사 ③ 기타

2. 학생들은 선생님의 진로지도를 잘 따르는 편입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3. 학생들은 진로지도에 관심이 많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4. 귀교에서는 진로지도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① 전혀 안되고 있다 ② 조금 이루어 진다

③ 별로 잘 안되고 있다 ④ 잘되고 있는 편이다 ⑤ 매우 잘 되고 있다

5. 진로교육 시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입니까?

① 학교 관리자의 인식부족 ② 진로교육 정보 부족

③ 상담 시간 부족 ④ 교사 자신의 무관심

6.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얼마나 자주 진로지도를 하십니까?

① 항상 한다 ② 자주 한다

③ 가끔 한다 ④ 거의 안한다 ⑤ 전혀 안 한다

7. 귀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진로지도에 대하여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 미흡하다 ② 미흡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대체로 만족하다 ⑤ 매우 만족한다

8. 자신의 진로지도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② 효과가 없는 편이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효과적인 편이다 ⑤ 매우 효과적이다

9.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가 어떠합니까?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부족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10. 진로지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진학지도를 의미 ② 진학 및 직업지도를 의미

③ 직업지도를 의미 ④ 생애지도를 의미

11. 진로지도의 상담교사 활동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진학 및 취업에 대한 정보 제공

② 진로결정을 위한 상담활동

③ 진로계획을 세우게 하고 그에 대한 상담

④ 취업을 위한 준비를 도와주는 일

12. 진로지도는 수업시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3. 효율적인 진로지도를 위하여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직 교사에 대한 진로지도에 관한 연수 기회 부여

② 모든 교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과 과정 개편

③ 진로지도에 대한 전문가의 양성

④ 다양한 진로지도 자료 개발 보급

14. 진로지도 내용의 심화를 위해 교과 과정이나 특별 활동에 반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반영할 필요가 전혀 없다 ② 반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③ 꼭 반영해야 한다 ④ 생각해 본적이 없다

15. 진로지도 시 가장 고려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①학생의 성적 ② 학생의 적성 ③ 직장의 보수 ④ 학부모의 요구

⑤장래전망 ⑥ 학생의 전공 ⑦ 학생의 의견 ⑧ 학교의 명예

16. 학교 관리자의 진로지도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① 매우 부정적이다 ② 부정적이다

③ 보통이다 ④ 적극적이다 ⑤ 매우 적극적이다

17. 진로지도를 위해 인성 및 적성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치 않다 ② 필요치 않다 ③ 조금 필요하다 ④매우 필요하다

18. 진로지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얼마나 노력하십니까?

① 매우 많이 ② 약간 ③ 거의 안함 ④ 아주 안함

19. 선생님께서는 진로지도 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십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0. 진로교육의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해 학교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연간 진로지도 계획 및 실천 ②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용

③ 진로의식 고취를 위한 행사실시 ④ 교과 학습을 토한 진로지도 교육실시

설문지(학생용)

안녕하십니까?
학교 업무로 바쁘신 와중에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설문조사는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지도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여 진로지도를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것이며 선생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본 연구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2005. 5.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행정전공
이 영 동

※응답요령 : 해당하는 사항에 하나만 √표기하여 주십시오.

개 인 사 항			
성 별	남	여	
학년	1학년	❷ 2학년	❸ 3학년
학년	농업계	❷ 상업계	❸ 공업계

1. 실업계고등학교에 진학을 결정한 이유 무엇입니까?

①본인의 적성에 맞추기 위해 ②취업 가능성 ③주위의 권유 때문에

④대학 진학을 위하여 ⑤가정환경 ⑥학교 성적 문제

⑦기타

2. 실업계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①취업한다. ②대학에 진학한다. ③자영업을 한다.

④생각해 본적 없다 ⑤기타(학원수강, 자격증 취득)

※ “취업한다”에 답한 경우만 대답하여 주십시오(3~4번)

3. 취업 후의 진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①직장 생활에만 전념 ②방속통신대학에 진학

③야간 대학, 대학 진학 ④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학원 수강 ⑤기타(가사)

4. 취업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사회에 일찍 진출하기 위해 ②대학에 진학 할 실력이 부족해서

③주위 사람들의 권유로 ④가정의 경제적 곤란으로 ⑤기타

※ “대학에 진학한다”에 답한 경우만 대답하여 주십시오(5번).

5. 대학진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 ②대학을 나와야 대우를 받는 현실 때문에

③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서 ④주위 사람의 권유로 ⑤기타

6. 직업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크게 고려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적성과 흥미 ②보수 ③장래성

④명예와 권력 ⑤국가나 사회에 대한 봉사

7. 실업계고등학교에 다니는 것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①대단히 만족 한다 ②만족은 못하지만 열심히 다니려고 한다.

③그저 그렇다 ④만족하지 못한다. ⑤대단히 만족하지 못한다.

8. 학교에서 주로 진로지도 상담을 누구와 합니까?

①담임교사 ②진로상담 교사 ③기타

9. 선생님은 얼마나 자주 진로지도를 해주십니까?

①전혀 안 해 주신다. ②드물게 해 주신다

③그저 그렇다 ④자주 해 주신다 ⑤항상 해 주신다

10. 선생님들이 진로지도 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합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1. 진로 선택 시 누구의 도움을 원하십니까?

①부모나 친척 ②교사 ③친구나 선배 ④기타( )

12. 진로지도 시 전공과의 관련성을 제시해 줍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⑤매우 아니다

13. 진로지도는 수업만큼 중요하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4. 귀하는 선생님의 진로지도에 잘 따르는 편입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아니다 ⑤매우 아니다

15. 귀하는 전로지도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전혀 도움 안 된다 ②도움 안 된다

③그저 그렇다 ④도움 된다 ⑤매우 도움 된다

16. 학교에서 제공하는 진로 교육에 대한 정보는 어느 정도 입니까?

①매우 부족하다 ②부족하다 ③보통이다 ④충분하다 ⑤매우 충분하다

17. 귀하는 진로지도에 관심이 많습니까?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다 ③보통이다 ④그렇지 않다 ⑤매우 그렇다

18. 현재 부모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①공무원 ②판매 서비스직 ③일반 사무직 ④기술직

⑤노무직 ⑥자영업 ⑦기업경영 ⑧무직

19. 현재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대단히 불만이다 ②조금 불만이다

③그저 그렇다 ④어느 정도 만족한다 ⑤대단히 만족한다

20. 부모님의 직업이 불만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수입이 적기 때문에 ②사회적인 지위가 낮기 때문에

③안정성이 적고 위험하기 때문에 ④부모님이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⑤시간이 없고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